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1-11

【인도자를 위한 예화】

시험은 우리를 세밀하게 연단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는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전석에 앉아 운전해야 합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서툴기에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작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게 됩니다. 신호 위반으로 걸려 범칙금을 내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습관이 결국 우리를 치명적인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접촉 사고가 아니라 인명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기기 힘든 큰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호기며, 우리가 새로워질 적기입니다. - 김병삼, 「치열한 순종」(두란노)

어렵다고 생각했던 시험을 통해 성장하거나 발전한 경험이 있나요?

【본문 읽기】 히브리서 12: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1장에서는 성도들의 본이 될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12장은 오늘날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담습니다. 1~11절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3절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경주하는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4~11절은 고통이 닥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주님이 주신 징계를 인내로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얻은 온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 우리는 악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 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 악에 오염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1~2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장까지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갓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을수록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과 교만, 나태는 성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저지르는 사소한 죄, 습관의 죄, 속이는 것 등은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는 가만히 참고 견디는 소극적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을 이겨 내며 극복해 가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참된 인내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경주의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험과 시련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I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나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자세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면 모든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는 모든 불편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죄를 벗어 버리고, 육체의 정욕, 교만, 나태, 불신앙 등이 싹트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주는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숨이 턱 아래까지 차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 내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며, 필요와 상황을 잘 아십니다. 좋으신 주님은 성도와 함께하시며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관찰과 묵상 II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6 ~11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순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는 역설적으로 영적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분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징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파이두오)에는 '양육하다', '습관을 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징계'에는 교육과 양육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바른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로 연단된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요일 3:2).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면류관'(딤후 4:8)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징계와 고난을 인내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징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이 나를 징계로 연단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연단의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인내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10절).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듯,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영적인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낙심하며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영적인 유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고난 중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단 후에 내가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